

계엄·의료대란·대형 참사... '위험 사회' 치유 나서야

2025 어젠다

일상이 지켜지는 사회로

대한민국에 사는 평범한 시민의 일상이 위협 받고 있다. 매일 열심히 살고 내일의 꿈을 꾸며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는 우리의 지인, 이웃 등이 아무 잘못 없이 너무도 소중한 삶을 끝마치고 있다. 저렴한 선박편으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 저가항공을 이용해 부모님과 효도관광에 나선 중년 부부와 생애 첫 여행에 나선 일가족, 서울 이태원에 헬러인 구경에 나선 20대 젊은이들, 모두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온 시민들이었다. <관련기사 2·3·6·7·8면>

그뿐만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나쁜 것은 계엄에 내일을 준비하거나 생업에 종사해야 할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며 추위와 맞서고 있다. 위헌적이며 반민주적인 권력자의 단죄를 외치며, 자신의 일상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선진국 대열에 있고, 세계 한류 열풍을 주도하는 문화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를 누려야 할 시민들은 정작 불안, 초조, 암울, 절망에 휩싸여 있다.

후진국에서나 가능한 대형 참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후진국의 권력자나 상상할 수 있는 국정 농단, 비상 계엄 발동 등이 실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국민의 안전을 감안하지 못한 정부의 조치는 '의정(醫政) 갈등'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시민들은 제때,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는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안전한 미래를 기대할 수 없고, 언제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과 학생들을 포함해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에서는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등의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 그 피해를 키웠다. 이후 대형 참사를 정치·사회적 갈등·마찰의 소재로 삼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자 2016년 가을 수 백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야만 했다.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 혁명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을 이끌었고, 비로소 새 정부가 들어설 수 있었다.

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 사고 내란 사태에 민주주의마저 위협 시민들 불안·초조... 힘겨운 나날

그 후 8년이 지나 2022년 10월 헬러인을 앞두고 이태원을 구경하기 위해 찾았다가 좁은 골목길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159명이 압사하는 '이태원 참사'가 있었다. 납득하기 어려운 경찰, 지자체, 정부의 대처 속에 시내 한복판에서 생애같은 젊은이들이 숨을 거뒀다.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진상 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참사 발생 1년 7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당의 소극적인 자세, 정부의 비협조 등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다.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의 시계는 45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37년간 정착되어왔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군홧발에 짓밟힐 위기를 맞았지만 다행히 시민들의 대대적인 항거,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등으로 고비를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의 범죄를 낱알이 밝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그리고 26일 후인 12월 29일 우리는 이태원 참사에 이어 2년여 만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마주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주말을 이어 따스한 태국 방콕에서 가족, 친지, 친구, 동료 등과 즐기며 돌아오던 179명의 선한 이들이 차가운 활주로 아스팔트에서 생을 마감했다.

2025년이 밝았다. 그림자처럼 장밋빛 전망보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며,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울 때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그들이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소수 특권층의 특혜가 아닌 국민 다수의 복리를 위한 정치, 일반 상식에 부합하며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법·제도, 무엇보다 대다수 국민의 정서에 기반하여 국가의 미래를 계획하는 리더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하는 극단적 세력에 대한 경계도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은 대개혁을 시작하여야 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1일 무안국제공항에 마련된 제주항공 참사 합동 분향소에 조문객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줄을 길게 늘어서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尹 내란혐의 수사·탄핵 심판 '급물살'

현직 대통령 첫 체포영장 발부
헌법재판관 2명 임명 '8명 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의 수사 및 탄핵 심판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법원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다음날 새벽 0시에 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지 약 21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 측이 중복수사 등을 내세우고 수사권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로 수사권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로 공수처 수사

에도 숨통이 트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오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방해하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다른 체포영장과 동일하게 7일이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에 불응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장 현재 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현재는 불안정한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재판관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현재는 줄곧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탄핵 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창간 73주년



광주일보 창간 73주년을 상징하는 엠블럼. 더 넓은 세상과 지평을 열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번개와 지구본 형태는 세계 곳곳의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는 광주일보의 비전을 상징한다.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을사년 띠풀이·운세 ▶11면
- 새해특집 - 광복 80년 ▶12면
- 신춘문예 소설 당선작 ▶20-21면
- 2025 스포츠 이벤트 ▶22면
- 핫플 - 강진 청자박물관 ▶26면

2025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 ▲ 소설 - 김근수 '그리고 바다'
- ▲ 시 - 이문희 '생각하는 나무'
- ▲ 동화 - 수이레 '터치!'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전남 대표은행 광주은행

2025 새해 복이 살며시 스르륵

지역민과 함께하는 광주·전남 대표은행 광주은행은 2025년 을사년(乙巳年)에도 변함없이 고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지방은행 브랜드 파워 7년 연속 1위

광주은행